

김고은-박소담-김태리 ‘짧은꼴 여배우 삼국지’

각종 신인상 휩쓸며 주목 받은 공통점 숨 고르는 김고은…이준익 ‘변산’ 출연 박소담 ‘양리할아버지…’ 등 연극 주력 ‘1987’ 김태리, 소포모어 징크스 시험대

해성처럼 등장한 김고은과 박소담 그리고 김태리가 영화계 섟날을 넘어 매력을 더한 여배우로 성장하고 있다. 연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개성처럼 연기 활동의 방향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연기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에서 영화 주연으로 파격 발탁된 김고은(26)과 박소담(26), 김태리(27)는 탁월한 실력과 활약으로, 데뷔한 그해 각종 영화상의 신인상을 휩쓴 주역이다. 화려한 신고식 이후 착실하게 경험을 쌓은 이들이 최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또 다른 출발선에 섰다.

김고은은 2012년 영화 ‘은교’로 데뷔한 이후

4년 동안 5편의 영화와 2편의 드라마 주연으로 나섰다. 왕성하게 펼친 다작 활동 가운데 호평을 이끌어낸 작품도 있지만 캐릭터를 완성하는데 미흡한 표현으로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 놓이기도 했다.

그런 김고은은 올해 초부터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 재정비 끝에 시작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변산’의 촬영을 최근 마쳤다. 앞서 출연한 화려한 작품들과 비교하면 ‘작은 영화’에서 그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청춘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제작진은 “더욱 성숙한 김고은을 만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박소담은 연극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2015년 영화 ‘검은 사제들’을

통해 그 해와 이듬해까지 신인상과 조연상을 휩쓸면서 성공적인 행보를 시작했지만 술한 러브콜을 뒤로하고 연극에 빠졌다. ‘렛미인’과 ‘클로저’를 연이어 소화한 그는 12월15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양리할아버지와 나’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배우 이순재, 신구가 그의 상대역이다.

비슷한 시기 데뷔한 연기자들이 영화와 드라마에 주력하는 활동과 비교하면, 박소담의 연극 집중은 그의 남다른 지향점을 엿보게 한다. 최근 연극의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매일 두 시간씩 같은 인물로 같은 감정을 이어가는 연극을 하면서 매번 성장하는 느낌”이라며 “20대에



김고은

박소담

김태리

배우라는 직업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도 보냈지만 연극을 만나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리는 소포모어 징크스를 넘어서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로 데뷔, 파격적인 인물과 이야기를 소화한 그는 한국영화를 짊어지고 나갈 여배우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두 번째 주연영화인 ‘1987’이 12월27일 개봉하면서 데뷔작으로 받은 스포트라이트가 ‘운’이 아닌 ‘실력’임을 증명해야 한다.

물론 기대는 여전하고, 반응도 긍정적이다. 아직 개봉하지 않았지만 ‘1987’에서 김윤석, 하정우, 유재진과 호흡한 김태리는 탁월한 실력으로 이야기의 한 축을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출을 맡은 장준환 감독은 “김태리는 인물이 가진 진짜 감정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며 “어떤 기교나 기술을 써서 대중 넘어가려고 하지 않은 배우”라고 평했다.

이혜리 기자 goll1024@donga.com

숫자뉴스

9.8%

12주 만에 돌아온 MBC ‘무한도전’의 시청률이다. 25일부터 다시 시동을 건 ‘무한도전’에서 유재석·박명수·정준하·하하·양세형 다섯 멤버들과 조세호는 MBC 뉴스센터에 모여 그간 못 다한 이야기를 풀어냈고, 전국 기준 9.8%, 수도권 기준 10.0%(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다.

#해시태그 킷



박세영이 겨울촬영을 건디는 법

겨울 필수아이템은 역시 푼패딩. 연기자 박세영이 강추위 속 야외촬영을 ‘건디는’ 방법을 공개했다. MBC 토요드라마 ‘돈꽃’의 여주인공 박세영이 검은색 푼패딩을 입고 핫팩을 두 손으로 꼭 쥐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겨울 한파 대비, 푼패딩과 핫팩 준비완료!”라는 글과 함께 “모두 감기 조심. 모두 분방 사수”라는 글도 덧붙였다. 추위를 거뜬히 건디는 그의 활약 덕분에 ‘돈꽃’의 시청률도 상승장구다. 25일 방송에서 15.1%(닐슨코리아)를 기록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이뤄냈다.

이혜리 기자

#스포츠동아 #박세영 #돈꽃 #푼패딩 #핫팩

이정연의 꼬리물기



영화 '공조'

귀순병사와 영화 ‘공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탈북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귀순병사 이야기가 각종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북한 병사의 목숨을 살린 이국종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다. 정치적 문제나 사회적 이슈와 논란은 잠시 차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도 전해졌다. 회복한 귀순병사는 25세이며, 배우 현빈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다. 몇몇 신문에서 귀순병사를 소개하며 현빈의 얼굴까지 가져다 쓴 걸 본 후, 귀순병사의 뉴스를 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현빈의 얼굴이 떠오른다. 또 이국종 교수가 귀순병사의 심신 안정을 위해 들려준 노래가 소녀시대의 ‘지’였다고 한다.

현빈과 소녀시대를 생각하니 한 영화가 떠오른다. 현빈이 주연한 ‘공조’. 올해 1월 개봉해 78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다. 신기하게도 귀순병사가 닮았다는 현빈은 영화에서 특수부대 출신의 북한 형사 립철령 역할을 맡고 고난도 액션연기를 소화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나 1%의 체지방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근육질 몸매, 어색한 듯 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았던 북한 말투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이 영화에는 소녀시대 윤아도 나온다. ‘남녀’ 윤아는 영화에서 ‘북남’ 현빈에게 애정공세를 퍼부으며 능청스럽게 코미디 연기를 소화했다. ‘공조’에는 지난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주혁도 나온다. 그동안 꾸준한 열정 아저씨 역할을 주로 맡았던 김주혁은 영화에서 처음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역할을 맡고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귀순병사가 현빈을 닮았고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는 소식에 영화 ‘공조’가 떠오르고, 그 김주혁까지 떠올리는 이 순간, 대중문화가 정치와 이념, 생활과 문화를 떠나 사람들의 생활에 얼마나 가깝고 친근하게 존재하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annjoy@donga.com

연예현장.jpg



그들 엑소가 24일부터 사흘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엑소 플래닛 #4-디 엘리시온’을 시작으로 월드투어에 돌입했다. 2015년 케이팝 가수 최초로 고척돔 콘서트를 벌인 엑소는 이번 콘서트로 6만6000 관객을 동원하며 ‘케이팝 가수 최초 고척돔 3회 공연’ 기록도 세웠다. 엑소는 이번 공연에서 ‘전야’를 시작으로 ‘코코팝’ ‘파워’ ‘으르렁’ ‘클 미 베이비’ ‘몬스터’ 등 32곡의 히트곡을 선보였다. 사진은 26일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나선 엑소.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사진제공 | 뉴시스

헤리답게 돌아온 헤리

오늘 첫방 ‘투깝스’ 사회부 기자 역 절친 수지 조연…“나만의 느낌으로”

걸스데이 멤버이자 연기자 이혜리가 27일 첫 방송하는 MBC 월화드라마 ‘투깝스’로 1년 5개월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그는 이전까지와 전혀 다른 자세로 ‘투깝스’에 임하고 있어 그 결과물에 시선이 모아진다.

이혜리는 지난해 6월 종영한 SBS ‘판파라’ 이



헤리

후 영화 ‘물괴’에 조연으로 참여하며 연기 경험을 쌓았다. 그 결과는 이혜리에게 상당한 발전을 가져다줬다. 스스로 “작품의 캐릭터에 녹아드는 방법을 찾았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다. 이혜리는 최근 ‘투깝스’ 제작발표회에서 “이전에는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대한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으며,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투깝스’에서 이혜리는 취재를 위해 물불 가

리지 않는 열혈 사회부 기자로 출연한다. 그동안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이혜리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를 캐릭터에 투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TV에서 봐온 사회부 기자는 분위기가 딱딱하고 지적이며,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 같은 편견이 있었다. 저와는 거의 반대되는 느낌의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만나면 생각이 바뀌었다. 내 방식대로 논의를 살려 표현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혜리는 ‘사회부 기자’라는 캐릭터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한 끝에 “이혜리스럽고” 또

“이혜리다운” 사회부 기자를 연기하게 됐다.

이혜리는 1994년생 동갑내기이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동창인 수지의 격려와 조언도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했다. 수지는 최근 종영한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 사회부 기자 역할을 맡아 두 사람의 화제가 됐다.

이혜리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 수지가 잘해 친구로서 멋있었다. 동시에 자극도 됐다. 비교될 수밖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만 수지에게 도움을 받아 준비를 잘 했다. 저만이 연기할 수 있는 사회부 기자를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여혐 논란으로 변진 애호박 논쟁

유아인 “농담 한 마디 건넸다가…” 고초 스타들의 SNS에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 악물 논란에 법적 갈등 표출까지 이어져

자신의 SNS에 오른 누리꾼의 댓글에 관한 배우 유아인의 언급이 뒤늦게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일부 누리꾼과 벌인 ‘설전’이 엉뚱하게도 ‘여혐’(여성혐오)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스타의 SNS 활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아인, 설리…자신을 드러내는 청구

이번 갈등은 18일 한 누리꾼이 “유아인은 20m 정도 떨어져서 보기엔 좋은 사람, 친구로 지내려면 조금 힘들 것 같은 사람. 냉정하고 열대 채소 간에 애호박 하나 있으면, 가만히 보다 갑



유아인

자기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정긋한 것 같은”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시작됐다. 이에 유아인이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코정긋)”이라고 답하자 일부 누리꾼이 “여혐” 등 비난을 퍼부었다. 유아인이 이에 굴하지 않았고, 24일 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공론화됐다.

유아인은 그동안 SNS를 통해 자신을 거침없이 드러내왔다. 사회적 발언을 포함한 다양한 생각을 뛰어난 글 솜씨로 밝혀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과 부딪친 적도 있었다. 그만큼 유아인에게 SNS는 작품 외에 자신을 드러내는 유력한 창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양새다. 유아인은 “성별 모를 영어 아이디니깐 농담 한

마디 건넸다가 마이너리티리포터에게 걸려 여성을 혐오하는 한국 남자이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며 이번 일에 아쉬움을 표했다.

유아인처럼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과감히 공개하는 스타로는 대표적으로 그룹 엑스엑스 출신 설리와 배우 박중훈 등이 꼽힌다. 설리의 경우 쏟아지는 비난과 불거지는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럼에도 SNS는…공적 영역? 소통 욕망의 공간?

스타의 SNS는 대부분 모든 대중에게 열린 공간이다. 그만큼 스타와 대중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스타들이 SNS를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홍보하거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 소속사 관계자 등이 이를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유아인이나 설리 등 일부 스타들은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써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의 악의와 오해, 편견의 시선에 시달리기도 한다. 때로는 SNS를 통한 누리꾼의 공격에 ‘법적 대응’의 칼을 빼들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누리꾼의 또 다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모두 일반적인 SNS 활동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스타의 SNS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유아인의 SNS와 관련된 일도 그런 시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연예인 이전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대중의 의견에 또 다른 시선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예인은 누리꾼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과도한 표현 등을 자체해야 하겠지만, 대중 역시 스타의 SNS를 통한 소통이 지극히 정제된 표현으로만 이뤄진다면 그 폭은 좁아지고 말 것”이라며 누리꾼의 좀 더 열린 시선을 기대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